

 보건복지부		보 도 자 료 6월 10일(수) 조간 (6.9. 12:00 이후 보도)		
배 포 일		2020. 6. 9. / (총 6매)		
보육정책과 (총괄, 전자출결시스템)	과 장	현 수 업	전 화	044-202-3540
	담당자	황 호 평		044-202-3541
		김 선 도		044-202-3547
보육사업기획과 (사업기획, 보육료)	과 장	이 윤 신		044-202-3560
	담당자	이 기 욱		044-202-3562
보육기반과 (어린이집 운영)	과 장	김 우 중		044-202-3580
	담당자	오 성 일		044-202-3582
공공보육팀 (보육교사)	팀 장	백 경 순		044-202-3552
	담당자	황 신 자		044-202-3556

어린이집 99% 안심등하원 자동알리미 설치, 약 3만 명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

- 3월부터 시작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5월 말 기준 어린이집당 평균 1.2개 연장 보육반 구성, 전담교사 2만 9187명 채용 -

아이가 서울 동작구 △△어린이집에 다니는 워킹맘 A씨는 「김○○ 아동이 오전 9시 20분 어린이집에 등원하였습니다.」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.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아이를 달리 맡길 곳이 없어 긴급 보육으로 어린이집에 계속 등원시켜 왔는데, ‘아이가 잘 등원했구나.’ 하는 안심에 미소가 지어진다. 특히 올해부터는 연장보육 전담 선생님이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을 별도로 돌보아 주셔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.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(3만5671개소)의 98.9%인 3만5287개소에 안심등하원 알리미(자동전자출결시스템) 설치를 완료하였고, 전체 등원 아동 90만 4766명의 99.7%인 90만 2339명이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.

- 안심등하원 알리미는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가 아동이 소지한 꼬리표(태그)를 읽어 아동의 등원과 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으로, 올해 예산 9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하였다.
- 지난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보육(~오후 4시)과 연장보육(오후 4시~7시 30분)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다.
 -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보육반을 운영하고 있다.
 - 등원 아동의 보호자가 눈치 보지 않고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, 어린이집 또한 장시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는 어린이집에 연장보육료를 지원*하고 있다.
 - * (연장보육료) 17시 이후 보육에 대해 시간당 0세반 3,000원, 영아반 2,000원, 유아반 1,000원의 연장보육료를 아동이 보육 받은 시간만큼 어린이집에 지원
 - *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안심등하원 알리미로 파악된 보육 시간과 보육료 지원이 연계됨
-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보육 기간이었던 5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41.9%(49만 8958명)가 1회 이상 연장보육을 이용하여 장시간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이 중 연장보육반에 편성되어 상시적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18.2%(21만 6629명)로 오후 5시 이후 월 평균 이용시간은 15.5시간이었다.
 - 반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긴급·일시적인 사유로 간헐적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은 23.7%(28만 2329명)로 월 평균 7.1시간을 이용하였다.

- 전국 어린이집 중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68.5%로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78.2%, 직장 70.9%, 민간 66.4%, 가정 68.2%로 나타났다.

어린이집 유형	전체 어린이집 수	연장반 운영 어린이집	연장반 운영 비율
합계	35,671	24,423	68.5%
국공립	4,598	3,595	78.2%
사회복지법인	1,325	799	60.3%
법인단체등	677	404	59.7%
민간	11,872	7,883	66.4%
가정	15,867	10,814	68.2%
협동	150	90	60.0%
직장	1,182	838	70.9%

- 오후 4시 이후에 남아있는 아동을 위한 연장보육반은 어린이집당 평균 1.2개, 전국 총 4만2956개(전체 18만 개 반의 23.8%)가 구성되었고, 이 중 67.9%인 2만9187개 연장반에 전담교사*가 배치되었다.

* 연장보육 전담교사: 4시 이후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을 전담 보육하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여 채용된 보육교사로 오후 3시~7시 30분 근무

-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은 낮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.

- 전체 연장보육 전담교사 2만 9187명 중 보조교사 겸임 등을 제외하고 신규 채용된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1만 7773명이다.

- 이 중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했던 교사는 9,068명(51.0%), 최근 2년 내 휴직 후 재취업자는 4,085명(23.0%), 신규 유입 사례(장기 미 종사자, 신규 자격자)는 4,620명(26.0%)이다.

- 또한 1만 7674명(99.4%)가 여성, 40~50대가 1만 3025명(73%)으로 중년 여성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- 다만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연장반 중 전담교사가 맡고 있는 비율은 대도시는 70.5%, 중소도시는 68.3%, 농어촌은 62.9%이다.

< 지역 특성별 연장반 구성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채용 현황 >

구분	연장반	연장보육 전담교사(명)	담임교사 겸임
합계	42,956 (100%)	29,187 (67.9%)	13,769 (32.1%)
대도시	15,140 (100%)	10,678 (70.5%)	4,462 (29.5%)
중소도시	18,727 (100%)	12,793 (68.3%)	5,934 (31.7%)
농어촌	9,089 (100%)	5,716 (62.9%)	3,373 (37.1%)

- 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현황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현황은 “아이사랑포털(<http://info.childcare.go.kr>)-통합정보공시-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찾기”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“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최고 관심사는 아이의 건강과 안전이다. 이를 감안해 올해 3월부터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아이들을 더 세심히 돌볼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고, 안심등하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등·하원을 부모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.”라고 전했다.
- 아울러 “이를 통해 아이는 보다 안전하고, 부모는 안심하고, 교사는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고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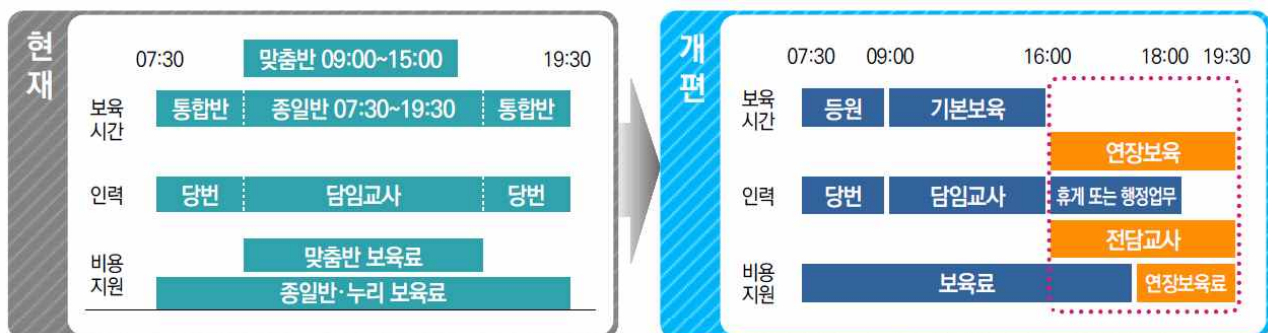
< 붙임 >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 내용

붙임

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 내용

	종전	개편(3.1.~)
보육시간	맞춤반 9:00~15:00 종일반 7:30~19:30	기본보육(전체) 9:00~16:00 연장보육(연장반) 16:00~19:30
교사	담임교사	담임교사 + 연장보육 전담교사
보육료	맞춤반/종일반 구분하되(0~2세), 이용시간 구분 없이 지급	기본보육료* + 연장보육료 추가(시간당) * 기존 대비 보육료 7.9%(종일반 대비 3.3%, 맞춤반 대비 18.5%) 인상
등하원정보 확인	-	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

- (배경) 종전까지 어린이집은 온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교사가 늦게까지 남은 아이를 돌보게 되어 아이 한명 한명에게 집중하기 힘들고 행정업무나 다음날 수업준비 등으로 장시간 근무
- (개요)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(~16시)과 연장보육(16시~19시 30분)으로 구분하여 운영
 - 어린이집은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, 17시 이후의 보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연장보육료 지급
 - 각 어린이집에 자동전자출결시스템(이하 안심등하원 알리미)을 설치하여 아이의 등·하원시각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전송



- (보육료) 기본보육료 + 연장보육료(17시 이후, 시간 단위 지원)
 - (기본보육료) 오전 7:30부터 오후 5시(4시 이후 하원시간 고려)까지로 산정되어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지원
 - 이로 인해 기존 맞춤반 보육료가 폐지됨에 따라 보육료가 평균 7.9% 인상되는 효과
 - (연장보육료) 오후 5시부터 오후 7:30까지 아동이 보육받은 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보육료로 어린이집에 지원
- (자동전자출결시스템) 아동의 등하원시간 및 연장보육시간 확인
 - 등하원 시각을 부모에게 문자·SNS로 알려 부모 안심 향상
 - 출석처리를 자동화하여 어린이집 행정업무 경감

< 자동전자출결시스템 흐름도 >



- (기대효과) 교사 업무 부담 경감 + 보호자 안심 증진
 -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도 별도의 교사에 의해 더 나은 보살핌을 받고, 보호자 입장에서 좀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음